

## 이준석 대표, 장동혁·조국에 '특검' 회담제안…張 "수용"·韓 "거절"

혁신당 "신천지 의혹도 포함해야…개혁신당, 국힘 살리기 나선 수사방해 야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제명된 강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입법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한다.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권 3당 회동에 대해 "민주당의 전제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신우 등 공천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묻어가고 있다"며 "야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혁신당을 향해 "부패

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대표에게 공일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호응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혁신당의

태도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진 여부를 말할 수 있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며 유보하는 입장을 내놨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와 이 대표 간 양자 화동이 먼저 논의돼온 만큼 두 대표 만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 기류였다.

범여권인 혁신당까지 논의에 참여하면 이견 속에 논의가 지연되거나, 특검법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계기로 한 공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혁신당 조 대표는 야당 대표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병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문자로 만남을 요청한 이 대표에

게 대변인실 입장문 발송 형태로 거절 의사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여당발 비리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수사방해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정작 돈 공천의 구태를 혁파해야 할 때 국민의힘 뒷수습에 협조하는 모양새는 개혁신당의 자기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야권연대' 운운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반한다.

정도를 가자"고 덧붙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돈 공천 문제 등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문제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위한 주장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정화 기자

## TS“눈오면 무조건 감속…안전수칙 준수해야”

최근 3년간 눈 올 때 교통사고 치사율(1.46), 맑음 일 때(1.24)보다 1.18배 높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오면 무조건 감속,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눈 올 때 교통사고 건수는 총 3,159건, 사망자 수는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눈 올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46(명/100건)으로 '맑음' 일 때 치사율 1.24(명/100건)보다 약 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눈 올 때'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3.97(명/100건)로 '맑음' 상태 치사율 3.40(명/100건)보다 약 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국도에서는 '눈 올 때' 치사율이 2.92(명/100건)로 '맑음' 일 때 치사율 2.05(명/100건)보다 약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 금지 ▲결빙 예상 구간 절대 감속 ▲눈길 진입 시 앞 차의



주행경로 따라가기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 조작 ▲브레이크 2~3번 나눠 밟기 ▲히터 사용을 줄여 졸음운전 방지 ▲기상정보·도로환경 살피는 정보운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 중 타이어 미끄러짐이 발생할 때는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만약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면 스핀현상 발생으로 차량이 회전해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살얼을 발생 위험이 높은 교량 위,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등을 운전 시에는 절대 감속 운전이 필요하며, 급제동이나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실제 TS가 2021년 시속 30km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km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노면 제동거리(2.7m) 대비 4.6배(12.4m)이고,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노면 제동거리(3.6m) 대비 4.9배(17.5m)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겨울철 눈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평소보다 감속 운전,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면서 “생활속 안전수칙 실천으로 교통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한전, 美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

한전 765kV 기술역량 기반, 미국 초고압 송전망 설계·기술 협력 본격화

미국 그리드시장 동반진출 교두보 확보로 국내기업 미국진출 지원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금)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 Master Service Agreement) : 양사 간 기본 계약 조건을 정리한 포괄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



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중서부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기술 컨설팅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스앤맥도널 CEO 레슬리 듀크(Leslie Duke)는 “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IDPP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 : AI 분석을 통한 발전소 고장예방 및 운영효율 향상 기술 등 한전의 전력망 핵심 기술 패키지인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 : 한전의 전력망 관리 신기술들을 융합한 토털 솔루션 기반의 패키지 Biz 모델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진 기자

## CJ푸드빌 푸레쥬르, ‘가스파드와 리사’ 컬래버레이션 딸기 신제품 3종 출시

‘가스파드와 리사’ 감성 담은 딸기 신제품 3종 출시.. 맛과 디자인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무드 담아

2월 11일까지 신제품 출시 기념 추첨 통해 한정판 키링 증정 프로모션 진행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가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가스파드와 리사’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딸기 신제품 3종을 선보이고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신제품은 ‘함께라서 달콤한 시간, You're BERRY Special’을 테마로 ‘가스파드와 리사’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무드의 디자인을 담아 더욱 매력적으로 선보인다.

딸기의 상큼함과 달콤함에 피스타치오 크림, 마스카포네 크림, 라즈베리 잼 등으로 포인트를 더해 풍부한 맛을 완성했다.

‘딸기 피스타치오 파스트리’는



버터 풍미가 가득한 그릇 모양의 바삭한 파스트리 안에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 잼과 라즈베리 잼, 고소한 피스타치오 크림이 조화

를 이루는 제품이다.

‘딸기 마블 샌드’는 촉촉한 핑크 마블 식빵 사이에 달콤한 딸기 우유 맛 생크림을 가득 채워 누구

나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기 좋은 제품이다.

특히 핑크 컬러의 딸기 마블과 생딸기를 토끼 귀 모양으로 연출한 데코레이션을 더해 ‘가스파드와 리사’ 특유의 귀엽고 로맨틱한 감성을 강조했다.

‘마스카포네 딸기 소보로’는 폭신한 빵 위에 소보로 토핑을 올려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더하고, 그 안에 부드럽고 진한 마스카포네 크림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 신선한 생딸기와 라즈베리 잼을 더해 크림의 깊은 풍미와 딸기의 상큼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디저트처럼 즐기 좋다.

이현진 기자

## 우리은행, 전문가가 Pick해 주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전문가·AI 기반 자산관리 체계 구축...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 추진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올해부터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 성향에 맞춰 표준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전문가와 AI 기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퇴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서비

스는 확정기여형(DC, IRP)개인형, 기업형) 등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연금자산 관리 전략과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을 제공한다. 우리WON뱅크 앱 내 'MY 퇴직연금관리' 배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전문가 추천 포트폴리오 매수 유무에 따라 가입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를 선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은퇴 전 연금자산을 모으는 시기에 적합

한 '적립기 포트폴리오'는 △공적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구성됐다.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필요한 '인출기 포트폴리오'는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구성되어 자산형성 시기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단순히 상품 추천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AI 기술과 전문가 기반의 고객 중심의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이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토털 연금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AI 기반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 자동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가입금액 제한 없는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통해 고객 부담을 낮춰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